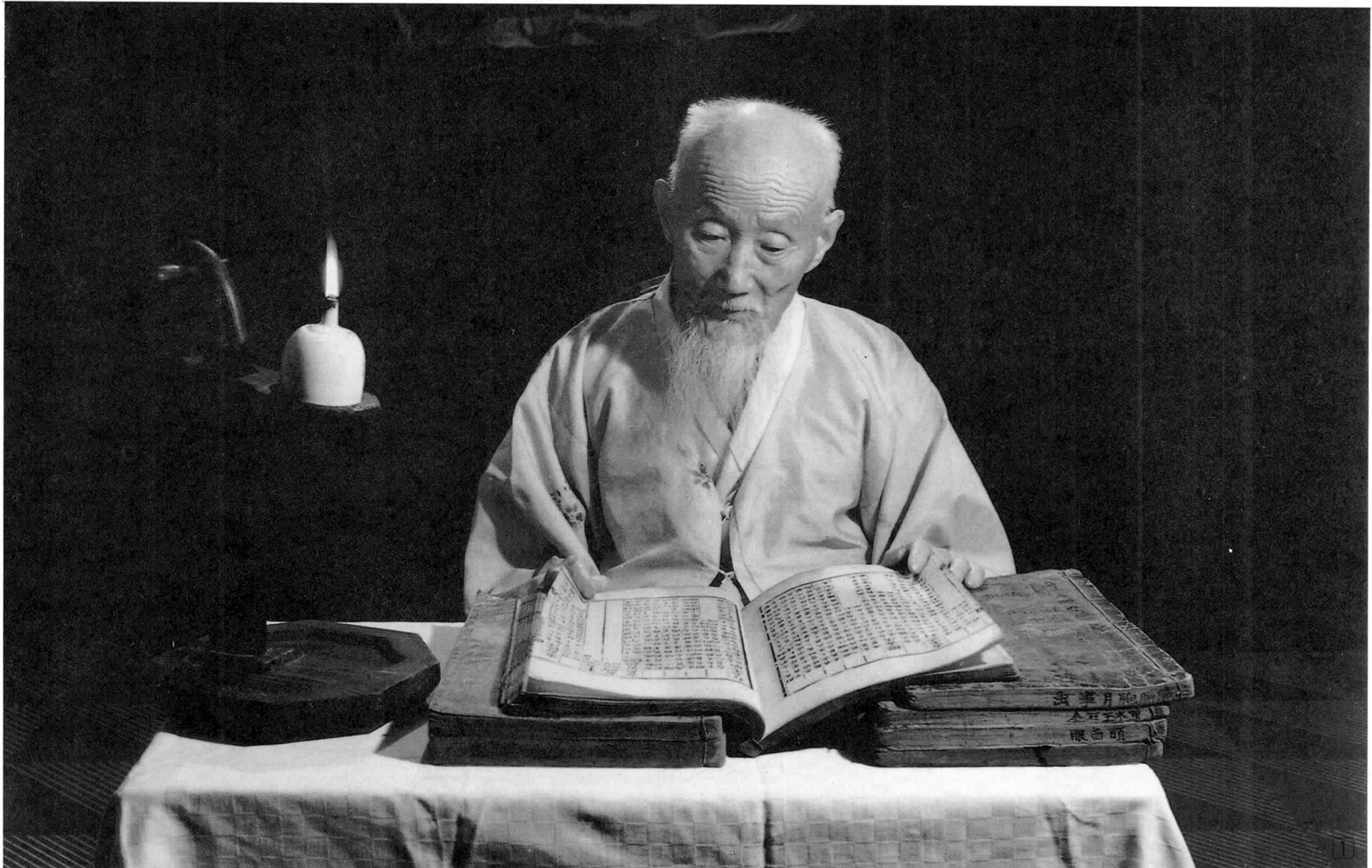


# 책 읽는 사람들의 책 읽는 풍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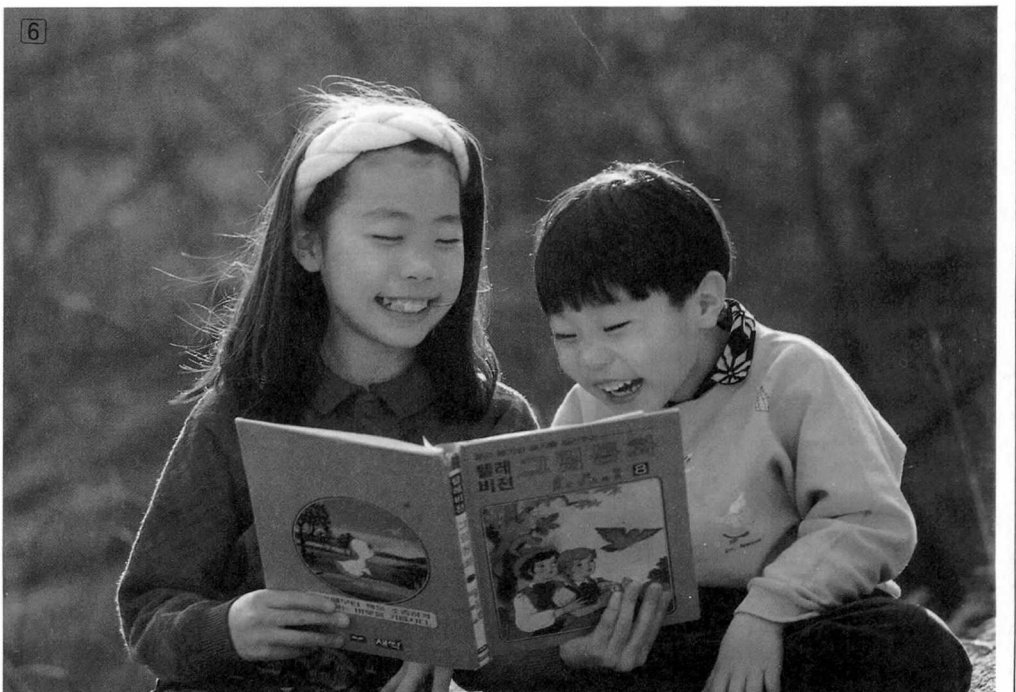
## 독서새물결운동추진위 주최 '생활속의 독서' 사진공모 수상작



2

거기 풍경이 있다. 이마에 주름진 세월마다 한 권씩의 책들이 자리잡고 있다. 수염은 한밤의 길이보다 더 길고, 등잔불은 세상을 비춘다. 좀 낡았기로서니 책이 아닐 수 없는 법. 바람도 없이 평안한 독서의 길은 지금 여기에 있다. 여기 책 읽는 풍경이 있다.

독서새물결운동추진위원회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속의 독서사진 공모전에서 김형덕씨의 '주경야독'이 대상으로 선정됐다. 이외에 금상은 김종식씨의 '보람된 노후'와 조경옥씨의 '엄마와 함께 독서를' 등이 선정됐다. 한 장의 피사체로 자리잡은 사진으로 독서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자 실시된 이번 공모전의 시상식은 11월 15일 출판문화회과 4층 강당에서 열린다. 또한 전시회는 교보문고 매장 상설전시장(11. 15~25), 부산무역 전시관 도서전시장(11. 30~12. 5), 대전 충무다목적 체육관 도서전시장(12. 8~13)에서 개최된다.



- ① 김형덕 「주경야독 2」·대상
- ② 조경옥 「엄마와 함께 독서를」·금상
- ③ 김종식 「보람된 노후」·금상
- ④ 안성의 「하오의 정경」·은상
- ⑤ 엄희생 「목동의 하루」·은상
- ⑥ 김창주 「환희」·은상
- ⑦ 안화균 「책여행(열중, 독서삼매)」·동상